

## 17세기 비주류 담론의 자기정당화 방식\*

- 허균의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을 중심으로

전진아\*\*

<차례>

1. 서론
2. <남궁선생전>은 신선전인가 - 입전인물 '남궁두'의 입전기치
3. <남궁선생전>의 이야기 전달 방식 - 이야기 전달 과정의 중첩
4. 전달의 화용론과 비주류 담론의 자기정당화 방식
5. 결론

### <국문초록>

허균의 <남궁선생전>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균이 도선 사상에 대해 취한 입장이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의견의 대립은 첫째, 결과적으로 독선에 실패한 인물로 보이는 남궁두를 허균이 입전한 이유, 둘째, 작품 말미에서 남궁두가 허균에게 하는 말의 의미, 셋째, 작품의 논찬에서 드러나는 허균의 사상적 태도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궁두의 말과 허균의 논찬을 분석하여 남궁두가 허균에게 한 말은 선도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에서 깨달은 참된 삶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며, 허균이 남궁두를 입전한 것은 남궁두가 신선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선의 실존을 증명하는 자로서 우리나라의 주체적 도맥을 증명해 주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작가 허균이 도선 사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기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남궁선생전>이 도선 사상을 배경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5C-A00413)

\*\* 이화여대.

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착목함으로써 작품의 특성과 문학적 성취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남궁선생전>의 서사구조는 ‘권진인 → 남궁두 → 허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달 과정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논리나 증거 제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를 획득하는 전달의 화용론이 가지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궁선생전>이 당대의 비주류 담론인 도선 사상을 다루면서 스스로 권위를 지니고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효한 서사 전략을 선택한 것이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에 이를 수 있는 근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허균, 남궁선생전, 전달의 화용론, 이야기 전달 방식, 정당화, 17C 비주류 담론

## I. 서론

신선전은 신선들의 이야기를 전(傳)이라는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신선이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관념된 불로장생하며 신변자재(身變自在)하는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데 이러한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신선전인 것이다. 신선전의 시초는 중국의 경우 유향(劉向; B.C.9~8C)의 『열선전(列仙傳)』이나 갈홍(葛洪; 283~343?)의 『신선전(神仙傳)』으로 보고 있고, 한국 문학사의 경우 신선전의 범주에 관한 논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치원(崔致遠; 857~?)의 『선사(仙史)』를 최초의 신선전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최치원의 『선사』는 현재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유향의 『열선전』이나 갈홍의 『신선전』과

1) 최치원이 쓴 『난랑비서(鸞郎碑序)』 중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도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히 쓰여 있다.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 박희병의 추정인데, (박희병, 『異人說話와 神仙傳(I) - 說話·野談·小說과 傳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53, 1988, 25면) 이것으로 『선사(仙史)』를 최치원의 창작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즉 신선들의 수련이나 이적에 대한 단편적 기록의 모음이었을 것이며 독창적인 작가의식에 의한 창작물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신선전의 형태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러 나타나는데 허균(許筠; 1569~1618)이나 홍만중(洪萬宗; 1643~1725)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신선전이 창작된다.<sup>2)</sup> 그리고 허균의 신선전들은 8세기라는 시간적 간극만큼이나 전대의 신선 설화나 신선 관련 서사와는 달라진 면모를 보인다.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 문부(文部)에는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 <엄처사전(嚴處士傳)>,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장생전(蔣生傳)> 등 다섯 편의 인물전이 실려 있는데 <손곡산인전>과 <엄처사전>은 유교적 가치를, 그 외 세 편은 도교적 가치를 담지하는 인물을 입전한 것으로 분류되며 학계에서는 도교적 인물을 다룬 세 편의 전을 신선전으로 보고 있다.

허균이 남긴 5편의 인물전 가운데서도 <남궁선생전>은 높은 작품성과 소설적 성취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남궁선생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허균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홍길동전>에 비하면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작품의 배경 사상<sup>3)</sup>과 작가의식<sup>4)</sup>,

2) 허균 이전의 신선전으로 1998년에 이신성에 의해 양만고(楊萬古; 1574~1654)의 『감호집(鑑湖集)』에 실려 있는 <기문(記聞)>, <적소이선기(籙嘯二仙記)>, <영원동우선기(靈源洞遇仙記)> 등 세 편의 신선전이 소개된 바 있다. 李愼成, 『감호집』 소개 <신선전>에 대하여, 『고소설연구』6, 1988. 이를 허균의 신선전 이전의 신선 설화의 문헌 정착 단계로 볼 것인지 본격적 신선전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3) 김현룡, 『蛟山の <南宮先生傳> 研究』, 『한국학논집』5, 1972; 최삼룡,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16, 한국언어문학회, 1978; 박영호,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17,

장르적 특성<sup>5)</sup>, 작품의 구조나 서사적 성격<sup>6)</sup>의 측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태이다. 기왕의 연구성과를 요약하자면, <남궁선생전>은 허균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 불우지사(不遇之士)로서 도선사상(道仙思想)에 침닉한 결과 창작된 작품이며, 허균의 뛰어난 재능에 힘입어 당대 유행하던 도선사상의 흐름이 문학적으로 서사화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작품에 나타난 사상과 관련해 <남궁선생전>을 신선사상이나 도선사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남궁선생전>을 대체로 신선전(神仙傳), 내단소설(內丹小說), 연단소설(煉丹小說)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궁선생전>에 드러나는 도선사상에 대한 허균의 입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이 상존한다.<sup>7)</sup> 작품에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 4) 이종찬, 『허균의 인간적 갈등과 南宮先生傳』, 『한국한문학회연구』1, 한국한문학회, 1976, 문범두, 『<남궁선생전>의 기술태도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7, 1995, 차충환, 『<남궁선생전>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인문학연구』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 5) 최창록, 『神仙傳과 神仙小說 장르의 設定』, 『인문예술논총』3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박희병, 앞의 논문, 1988, 박희병, 『異人說話와 神仙傳(II) - 說話 · 野談 · 小說과 傳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55, 1989.
- 6) 전상경, 『<남궁선생전>의 형성과 작품구조』, 『문학과 언어』14,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3, 차충환, 『<南宮先生傳>의 서사적 성격』, 『고향논집』17,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 7) 허균이 <남궁선생전>을 통해 도선적 사상을 긍정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립되는 것으로는 박희병, 조동일, 문범두 등의 연구가 있다. 박희병은 <남궁선생전>을 도선적 삶에 대한 회개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파악하였고(박희병, 앞의 논문, 1988.), 조동일은 <남궁선생전>을 신선담(神仙譚)이 아닌 “세계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자아와 세계의 완강한 대결”을 그린 일사소설(逸士小說)로 보았다.(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38-245면.) 문범두는 <남궁선생전>의 기술태도를 분석하면서 허균이 현실에서 발붙일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도가

도선사상과 관련된 내단수련의 과정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천선(天仙) 권진인이 여러 신들의 조회를 받는 장면의 서술 등이 많은 서사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궁선생전>이 도선사상을 다루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상에 대한 허균의 태도는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 드러나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결과적으로 득선에 실패한 인물로 보이는 남궁두를 허균이 입전한 이유, 둘째, 작품 말미에서 남궁두가 허균에게 하는 말의 의미, 셋째, 작품의 논찬에서 드러나는 허균의 사상적 태도이다.

작품에 도선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만으로 작가 허균이 도선 사상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를 단언하는 것은 유불선(儒佛仙) 삼교가 혼효되어 있는 동양 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허균이 남긴 다른 저술들이나 그의 가계와 교유인물들의 성향 등을 살펴볼 때 그가 도선 사상에 경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 현실 정치의 중심에 서있던 유자(儒者)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아침마다 향을 피워놓고 부처에게 절을 올린 일로 삼척 부사직에서 파직을 당한 일이 있을 정도로 허균은 불교에 대한 경사도 아울러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남궁선생전>에서 드러나는 허균의 의식이 도교적인가 또는 도선 사상에 대해 긍정적이었는가의 판단 근거를 작품의 외부에서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는 <남궁선생전>을 창작한 작가의식의 문제로서 작품 내적 언술의 분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남궁선생전>이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주제를

---

적 초월세계를 택했으며 득선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하였다. (문범두, 앞의 논문, 1995.)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대부분 유불선 삼교에 사상적으로 통하여 있었지만 당대의 지배적 담론은 현실주의적 유교 사상이었다. <남궁선생전>이 드러내고 있는 도선 사상은 당대의 지배 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비주류 담론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지배 담론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남궁선생전>의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비주류 담론의 자기 정당화 방식을 고찰해 봄으로써 <남궁선생전>이 이룩한 문학적 성취의 일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남궁선생전>은 신선전인가 - 입전인물 '남궁두'의 입전가치

<남궁선생전>은 허균의 한문 문집에 실린 다섯 편의 전(傳) 작품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인 전 양식의 틀인 '인정기술 - 행적 - 논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전은 실존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는 글쓰기 영역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 입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만든다. 여기서 <남궁선생전>의 입전대상 인물인 남궁두는 실존인물이라는 전제가 받아들여진다.<sup>8)</sup> 그런데 <남궁선생전>을 신선전이

8) 남궁두는 <남궁선생전> 이외의 다른 문헌에도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당대의 실존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4에 실린 <섭생월찬서(攝生月纂序)>에도 남궁두에 대한 언급이 보이며,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이명원(李命源)의 『동야회집(東野彙輯)』 등에도 남궁두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 홍만종(洪萬宗)의 『해동이적(海東異蹟)』 등 <남궁선생전>이 轉載된 문헌들도 있다.

라고 보면, 남궁두는 신선으로 인정되며, 또 전은 실존인물을 입전하므로 이 입전된 신선은 실존인물이라는 것이 장르관습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이 된다. 허균의 또 다른 신선전인 <장산인전>이나 <장생전>의 인정기술 부분을 <남궁선생전>의 인정기술과 비교해보면 허균이 <남궁선생전>에서 입전 인물 남궁두의 실존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서사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장산인의 이름은 한웅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sup>9)</sup> <장산인전>

장생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sup>10)</sup> <장생전>

선생의 이름은 두이다. 대대로 임피에 살았는데 집안이 본디 부유해서 그 지역에서 재산으로 땡땡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관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유독 두만 박사제자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나이 30세에 비로소 을묘 사마시에 합격하여 과장에서 명성을 얻었고, 일찍이 <대신불약부>로 성균관 시험에 장원을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외웠다.<sup>11)</sup> <남궁선생전>

이상은 각각 세 작품의 첫 부분이다. 이 세 작품은 허균의 신선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산인전>과 <장생전>은 몇 개의 삽화가 나열된 짧은 전이고, <남궁선생전>은 사건 전개의 전후관계가 치밀하게 짜인 비

9) 張山人名漢雄，不知何許人也。『惺所覆瓿藁』卷八 文部 五，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편, 『허균전집』, 1972, 101면. 이하 허균의 작품은 『허균전집』에서 인용하며, 『허균전집』의 쪽수만 명기하기로 한다.

10) 蔣生不知何許人。『허균전집』 106면.

11) 先生名斗，世居臨陂，家故饒，財雄於鄉。自其祖父二世，皆不肯推擇爲吏，斗獨以博士弟子業起家，年三十，始中乙卯司馬，有聲牆屋間，嘗以大信不約賦，魁泮解，人皆傳誦之。『허균전집』, 101-102면.

교적 긴 서사를 갖춘 전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작품이므로 단선적 비교는 불가하다. 하지만 동일 작가가 신선전이라는 동일 장르의 글쓰기에서 비슷한 부류의 입전 인물에 대해 행한 인정기술이라는 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궁선생전>은 남궁두가 전라도 임피 사람이며 을묘년(1555)에 과거시험을 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입전인물을 구체적인 시공간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장산인전>과 <장생전>이 공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서술로 시작하고 있는 데 비해 그의 실존성을 부각시켜 준다. 여기서 실제로 남궁두가 을묘년 사마시에 합격을 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사람들, 즉 수신자가 이 맥락에서 직접 공적 기록을 대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술자가 입전 인물의 인정 기술에 공적 기록의 맥락을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로 시작하는 다른 두 작품의 인정기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역사적 실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서술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행적 서술’ 또한 <남궁선생전>과 다른 두 작품이 차이를 보이는데 <장산인전>과 <장생전>이 여러 개의 짙막한 일화들을 나열하고 있는 데 비해<sup>12)</sup> <남궁선생전>은 단일 삽화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사건의 인과관계에 의해 전개된다. 즉 남궁두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의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남궁두라는 인물이 본래 어떤 인물이고(남궁두의 기질), 왜 내단 수련을 하게 되었고(기질에 의한 타

12) <장산인전>이나 <장생전>은 <남궁선생전>의 1/6 정도 되는 분량인데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삽화가 나열되어 있다. <장산인전> : 수련담과 득선담 - 호랑이를 꾸짖은 이야기 - 축귀담 - 죽은 동물 살리기 - 점쟁이 이화보다 점을 잘 쳤다는 이화의 전언 - 임진 왜란 때 시해담 - 정봉을 만난 이야기 - 정봉에 대한 이야기 / <장생전> : 장생의 내력 - 장생의 기행과 재주 - 비첩의 봉미를 찾아준 일 - 수표교에서의 시해담 - 홍세희에게 나타난 일 - 홍세희의 후일담

락), 어떻게 내단 수련을 하였으며(권진인을 만나 수련한 이야기), 왜 실패하였고, 득선 실패 이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하나의 인과적 서사 논리로 일관되게 전개된다. 남궁두는 전라도 임피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그의 조부나 부친과 달리 벼슬길에 뜻을 두고 과거를 보아 합격하였으나 성적이 오만하여 지방의 관리들에게 잘 보이는 법이 없었다. 환로(宦路)를 위해 서울과 고향집을 오가던 어느 날, 자신의 첩과 이성 당질이 사통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의령의 야사(野寺)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알아맞히는 젊은 중을 만나 치상산의 권진인을 소개받고 일 년여를 찾아 헤맨 끝에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련을 하지만 득선의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실패하고 속세로 돌아와 범부의 삶을 이어간다.

전의 행적 서술 부분은 대상 인물의 입전 가치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신선전인 <남궁선생전>의 행적 서술 부분은 입전 인물인 남궁두의 신선으로서의 면모가 기술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남궁선생전>의 행적은 득선에 실패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심지어 마무리 부분에서 남궁두가 허균에게 토로하는 말은 자신이 추구하던 선도에 대해 회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sup>13)</sup> 그렇다면 득선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득선의 경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비치는 남궁두를 과연 신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장산인이나 장생이 신선이라고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기이한 행적도 기이한 행적이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기이함 때문이다. 장산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적군의 칼을 맞았지만 하얀 기름 같은 피를 흘리며 선 채로 죽었고 죽은 뒤에도 정봉(鄭肅)에게 나타나 자신은 금강산으로 간다고 했다. 장생은 술에 취해 수표교에서 쓰러졌는

13) 문범두, 앞의 논문, 1995, 140-141면.

데 시체가 벌레가 되어 흩어졌으며 죽은 뒤에 홍세희(洪世熹)에게 나타나 동쪽 바다로 떠난다고 하였다. 장산인이나 장생은 하얀 피를 흘리며 선 채로 죽거나 시체가 벌레가 되어 흩어지는 등 죽음 자체가 기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다시 나타나 그들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혹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남궁두는 내단 수련 중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지 못해 득선(得仙)의 경지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스승으로부터 800년은 살 수 있다는 지상선(地上仙)의 경지를 보장받지만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보면 스스로 화식을 하며 보통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지상선의 경지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화식을 하는 남궁 선생을 의아하게 여기는 허균에게 남궁 선생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선생이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은 것이 그 말과 맞지 않아 보여서 이상하게 여겼더니, 선생이 말하였다.

“나는 처음에 천상선이 될 수 있을까 하였는데 빨리 이루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루지 못했다네. 그러나 나의 스승께서 이미 지상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부지런히 수련하면 800세는 기약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요즘 산중에서 한적한 것이 자못 괴로워 속세로 내려왔는데 친지라곤 한 사람도 없고 가는 곳마다 나이 어린 것들이 늙고 추하다고 나를 가볍게 여기니 인간 세상에 흥미가 전혀 없네. 사람이 오래도록 보고자 하는 것은 원래 즐거움이 되는 일인데 전혀 즐거움이 없으니 내가 오래 살아 무슨 소용이겠나? 그래서 익힌 음식을 금하지 않고 자손을 안고 재롱도 보며 여생을 보내다 돌아가는 것이 하늘이 내게 부여한 운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신선이 될 만한 바탕이 있으니 힘써 행하여 쉬지 않는다면 진실로 신선이 되는 일이 자네와 어찌 먼 일이겠는가? 나의 스승께서 일찍이 내가 참을성이 있다고 인정하셨는데도 내가 능히 참지 못해서 이리 되었네.

그러니 참는다는 인(忍)자 한 자가 선가의 묘결이라고 할 수 있네. 자네도 삼가 명심하여 어그러뜨리지 말게나.”

남궁 선생은 얼마간 더 머무르다가 만류를 떨치고 떠났다.<sup>14)</sup>

남궁두의 이 말은 오랫동안 선도에 대한 회의로 해석되어 왔지만 필자는 남궁두의 이 말에 대해 득선이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쓸쓸한 어조의 회한이 담긴 토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에서 참된 삶의 의미가 곧 “즐거움”이라는 깨달음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남궁두는 일반적인 신선전의 입전 대상 인물과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는 천선이나 시해선(尸解仙), 또는 지상선으로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균은 남궁두의 어떤 점 때문에 그에 대한 전을 썼던 것일까? 그의 입전의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논찬 부분을 보기로 하자.

허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하지만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신라시대로부터 지금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도를 이루어 신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나 나는 남궁 선생이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렇지

14) 不佞見先生飲啖息食如平人，怪之。先生曰，“吾初擬飛昇，而欲速不果成。吾師既許以地上仙，勤脩則八百歲可期矣。近日山中，頗苦閑寂，下就人寰，則無一個親知，到處年少輩，輕其老醜，了無人間興味。人之欲久視者，原爲樂事，而悄然無樂，吾何用久爲？以是不禁煙火，抱子弄孫，以度餘年，乘法歸盡，以順天所賦也。君有仙才道骨，力行不替，眞仙去君何遠哉？吾師嘗許我以忍，不能忍而至是，忍之一字，仙家妙訣，君亦慎持勿墜也。”留數旬，拂衣辭去。『허균전집』, 106면.

15) 전진아, 『죽음을 극복하는 신선 이야기, <남궁선생전>』, 정하영 외,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보고사, 2010, 99-101면.

않다고 할 것이다. 남궁 선생이 스승으로 모셨던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의상 대사로부터 비결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꼭 믿을 만하지는 않다. 또 그가 말한 것도 모두 그럴듯하지도 않다.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 것이어서 실체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다만 남궁 선생의 나이를 가지고 그 모습을 본다면 진실로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팔십의 나이에 이처럼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실로 이런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불가한 것이다.

아, 기이하도다! 우리나라가 외진 곳에 치우쳐 있어 선문자나 안기생과 같은 신선이 드물었는데 암혈 가운데 이와 같은 이인이 누천 년 살아있어 남궁 선생으로 하여금 한 번 만날 수 있게 하였으니 누가 공벽한 땅이라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하는가? 도에 이르면 신선이요 도에 어두우면 보통 사람인 것이다. 전해지는 말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남궁 선생이 빨리 이루자 하지 않고 끝내 내단 수련의 효과를 거두었다면 저 선문자나 안기생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겨루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다만 참지 못하여 거의 다 이론 공을 무너뜨렸으니 아아, 애석하도다!<sup>16)</sup>

허균이 논찬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궁두의 입전가 치는 그가 천상선(天上仙)이었던 그의 스승 권진인의 실존을 증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주체적인 도맥이 있음을 실증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나이에 비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궁두의 외모를 허균 자신이 직접 목도한 사실은 남궁두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믿어야

16) 許子曰, “傳言東人尙佛不尙道。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余所親南宮先生言之, 可異焉。先生所師者, 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所說亦未必盡然, 要之影響之間也。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已爲實無是事也。噫, 其奇哉! 我國僻在海外, 遐舉之士, 如羨門安期, 而巖石間, 乃有如此異人, 累千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言者, 與耳食奚殊? 使先生, 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 『허균전집』, 106면.

하는 실증적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허균 스스로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나 메아리가 실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실을 하는 것처럼 남궁두가 전하는 이야기도 실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남궁두는 신선으로서 입전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신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로서 입전 대상이 된 것이다.

### Ⅲ. <남궁선생전>의 이야기 전달 방식

#### - 이야기 전달과정의 중첩

하나의 서사 논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남궁선생전>은 남궁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남궁두의 이야기는 그의 스승 권진인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권진인의 이야기는 남궁두가 내단 수련에 실패한 시점에서 스승에게 그 내력을 물어보자 권진인이 직접 남궁두에게 말해 준 이야기이다. 불치병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방황하다 스승을 만나 비전을 전수받고 홀로 수련하여 득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권진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득선담(得仙譚)의 유형을 보이는데 <남궁선생전>에 실린 권진인 이야기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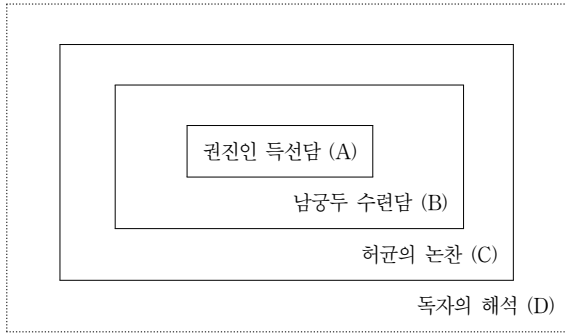
권진인은 상주 사람으로 권행(權幸)의 증손인데 송(宋) 희녕(熙寧) 2년, 즉 고려 문종(文宗) 23년에 태어났다. 그는 열네 살에 나병에 걸리자 부모가 숲 속에 버렸는데 호랑이가 석실에 물어다 놓아 심한 통증을 한스러워하며 살다가 벼랑에 난 풀을 먹고 병이 나왔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산속의 노승을 찾아가 의상대사의 비전을 전수받고 홀로 수련하여 11년 만에 신선이 되었으며 옥황상제가 동국 삼도의 신을 통솔하라고 하여 오백 년째 지상에 머물고 있다.<sup>17)</sup>

남궁두에 대한 인정기술에서 그러했듯이 권진인의 가계와 출생년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김시습이 도를 배운 도인 설현(契賢)도 적상산의 권청(權淸)이라는 도인으로 부터 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권청이 바로 남궁두의 스승인 권진인과 동일인이라고 한다.<sup>18)</sup> 그러나 허균도 논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진인에게 의상대사의 비전을 전한 노승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권진인이 득선하여 몇 백 년을 살고 있다는 것 등은 쉽게 믿기 힘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균의 표현을 빌면 그림자나 메아리의 역할을 하는 남궁두의 존재에 의해 이 이야기는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권진인이 신선이 된 이야기를 스스로 제자 남궁두에게 하고, 남궁두가 자신의 일생 이야기를 허균에게 하면서 권진인이 신선이 된 이야기를 전하고, 허균이 남궁두의 일생 이야기를 독자에게 하면서 권진인의 득선담을 전하고, 독자는 허균의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이야기의 전달 과정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17) 이와 유사한 유형의 신선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갈홍(葛洪)의 『신선전』에 실려 있는 <조구(趙瞿)>라는 이야기가 있다. 조구는 상당(上黨) 사람인데 몇 년 동안 나병을 앓자 가족들이 산속의 굴에 그를 버린다. 불행을 원망하여 탄식하는 조구를 지나가던 신선이 발견하고 송지(松脂)를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조구의 병이 나았으며 집에 돌아가 170세가 되도록 늙지 않았고 집에 신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300여 년을 살다 포독산(抱犢山)으로 들어갔는데 지선(地仙)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같은 이야기가 『태평광기(太平廣記)』권10에도 실려 있다.

18)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257면.



〈그림 1〉 남궁선생전의 이야기 전달 구조

위의 그림에서 'A-B-C'는 작품의 내재적 층위라면 'D'는 작품의 외재적 층위이다. 기존연구 가운데 <남궁선생전>이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액자구조는 외화보다는 내화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그러므로 위의 그림은 작품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도식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달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본 것이다. 물론 '권진인 → 남궁두 → 허균 → 독자' 식으로 전달 주체 위주의 선조적 개념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단선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개념도를 구상해 보았다.

더구나 권진인의 특선담은 이야기의 생성지점이 아니고 독자는 이야기의 종착지점이 아니다. 권진인은 남궁두에게 자신의 내력을 말해주면서

19) 김은경, 「허균 '傳'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18면. 김은경은 “남궁선생전은 남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그 내부에 스승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면서 액자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권진인의 이야기는 남궁두의 신선적 면모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지적처럼 내화보다는 외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액자구조라고 할 수 없으며, <남궁선생전>을 액자구조로 보려면 권진인의 특선담을 포함한 남궁두의 수련담을 내화로 하고 허균이 남궁두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외화로 하는 액자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자신이 비결서를 받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나는 바로 나는 듯이 그 암자로 갔네. 암자는 낮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네. 손으로 결재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 선방으로 가보니 한 늙고 병든 스님이 굵은 베옷을 걸치고 안석에 기대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곧 죽을 것 같았네. 스님이 눈을 들어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네. ‘어젯밤 꿈에 우리 의상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비서를 전할 사람이 곧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의 관상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군.’ 그러더니 일어나 자루에서 책 한 상자를 꺼내 나에게 주며 말했네. ‘이것을 만 번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깨우칠 것이니 힘써 게을리 하지 말게.’ 나는 스님에게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셨지. ‘신라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들어가 정양진인을 만나 이 책을 받으셨네. 입적하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백 년 뒤에 이 책을 전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네. 그대가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니 이 책을 받아 부지런히 노력하게. 나는 이 책을 전했으니 이제 가야겠네.’ 그리고는 앉은 채로 고요히 입적하였네.<sup>20)</sup>

이처럼 남궁두가 전해주는 권진인의 이야기 속에는 권진인에게 책을 전해준 노승과, 노승에게 책을 전해준 의상대사와, 의상대사에게 책을 전해준 정양진인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 즉 <남궁선생전>은 안쪽으로 무한한 이야기의 층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남궁선생전>이 바깥쪽으로 이야기의 층위를 확대해가는 과정은 작품의 외재적 층위이므로 작품 자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권진인이

20) 吾卽飛至其菴，禪寮晝閉，闔爾無人，手關廊戶，行到中寮，有一老病僧，擁布褐，隱几而喘，幾死。擡眼見之曰，‘夜夢老相言，傳我師秘書者，今當至，相君面，眞其人也。’起解囊出一函書，授之曰，‘讀此萬周，其意自見，努力勿怠。’吾問其熟，僧曰，‘新羅義相大師入中原，逢正陽眞人，授此書，臨化囑我，二百年後，當有傳者，君應其識，可受持勉力。吾得所傳，從此逝矣。’跏坐寂然化。『허균전집』, 104면.

나 남궁두의 이야기가 다른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정황들이 이야기 확산의 과정을 확인시켜 준다. 예를 들면 양만고의 『감호집』에 실려있는 <기문>이나 홍만종의 『해동이적』에 실려있는 <권진인>과 같은 작품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특히 홍만종의 <권진인>의 경우 허균의 <남궁선생전>에서 허균이 남궁두와 나는 대화와 논찬 부분이 없을 뿐 <남궁선생전>의 구성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두 작품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궁선생전>은 내적으로 무한한 이야기의 충충을 내포하고 외적으로도 무한하게 이야기의 충위를 확대해가는 이야기의 전달 과정 중 한 부분이면서 이야기 전달 과정 전체를 작품 내에서 구조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IV. 전달의 화용론과 비주류 담론의 자기정당화 방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궁선생전>이 보여주는 무한하게 확대되는 이야기의 충충적 전달과정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5-1998)가 이야기적 지식의 화용론에서 말한 이야기의 전달과 연관된 특징들로 설명될 수 있다. 리오타르는 이중의 화용론적 제의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하는 능력이 이전에 그가 이야기의 청자였다는 사실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청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재적으로 동일한 권한에 도달한다고 하였다.<sup>21)</sup>

21) 리오타르는 이야기의 서술이 화용론을 결정하는 규칙에 따라 서술된다고 하면서 서사를 조직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식의 사례로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 상류에서 생활하는 카시나외족의 설화 이야기 방식을 예로 들었다. 카시나외족은 자신들의 모험을 들려줄 때 일정한 공식을 따르는데, “여기에 …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화용론적 규칙을 <남궁선생전>에서 살펴보면, 권진인은 노승으로부터 의상대사와 정양진인의 이야기를 (청자로서) 들었기 때문에 남궁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남궁두는 권진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위치에서 획득한 경험사실로부터 허균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위치에 놓이고, 허균은 남궁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얻은 수행능력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 전달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전달되는 무한한 과정은 동일한 패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남궁선생전> 안에 구현된 권진인에서 남궁두를 거쳐 허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달과정은 그 반복되는 패턴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의 구체적인 모습은 특히 서사의 대상이자 이야기 전달의 주체들인 권진인, 남궁두, 허균을 비교해 볼 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세 인물이 청자의 위치에서 화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화자로부터 각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단언을 듣는다. 권진인은 노승으로부터 '비서를 전할 자'로 규정되며, 남궁두는 권진인으로부터 '신선술을 가르칠 만한 자'로, 허균은 남궁두로부터 '선재도골이 있는 자'로 규정된다. 이들은 이러한 자질을 지녔기 때문에 이야기 전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서술되고 있지만 기실 이야기 전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자질을 담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은 고난에 처하여

---

내가 항상 들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들어 주십시오."하고 시작하여, "여기에서 ...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 준 사람은 ... (카시나와족의 이름)이며, 백인 식으로는 ...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 식 이름)입니다."라고 끝맺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이먼 말파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족의 옛 영웅과 연결시키며, 두 이름은 과거와 현재의 결속으로서 한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이현복 역, 서광사, 1992. 55-56면; 사이먼 말파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더니즘을 구하라』, 윤동구 역, 엘피, 2008. 51면.

방황하다 선도에 입문하여 수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작품 내에 서사화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 대상 서사 단위	권진인	남궁두	허균
* 자질	꿈에 노승이 말씀하시기를 스승님의 비서를 전할 자가 이제 올 것이라고 하더니 그대의 상을 보니 진실로 그 사람이로군.	그대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로군. 추(樞)가 박하니 다른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겠고 죽지 않는 법이나 가르칠 수 있겠네.	선재도굴이 있으니 힘써 행하면 진선이 될 것
① 고난	문등병에 걸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살인을 저지르고 극형에 처해지다.	공주부사에서 파직당하는 등 세상과 불화하다.
② 방황	약초를 먹고 병이 낫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다.	아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추격을 피해 방황하다.	세상과 융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③ 선도 입문	어떤 스님을 만나 산속의 절을 찾아가다.	젊은 스님을 만나 권진인을 찾아가다.	선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남궁두를 만나다
④ 비결 전수	노승을 만나 비전을 받는다.	권진인을 만나 비전을 받는다.	남궁두를 만나 선도에 대해 듣다.
⑤ 수련과 득선	수련하여 천상선이 되다.	수련하여 지상선이 되다.	수련하면 득선할 것이다.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거나 자신도 믿기 힘들지만 자신이 들은 바가 그렇다는 식의 언급은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에서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이다. 특히 신선전 계열의 작품들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식의 언급이 자주 등장하며 입전인물에 대한 정보는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반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에게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다.<sup>22)</sup> 이처럼 허구적 이야기가 사

22)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권척(權楨; 1599-1667)의 <안상서전(安尙書傳)>에서 화자인 권척은 안상서인 안여식의 아들 안천명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입전하였다. 또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은 <설생전(薛生傳)>에서 수원에 사는 최성운

실기록의 외연을 도입하거나 이야기의 청자가 화자가 되고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은 고소설에서 낯선 특징은 아니지만, <남궁선생전>은 이야기 전달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야기 주체들이 도달하게 되는 권한이 그 어떤 작품보다 선명하게 구현되어 있다. 작품 내부에서 이야기 전달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청자, 화자, 대상이 동질화되는 과정은 작품의 독서 과정에도 확대되면서 독자 역시 권진인, 남궁두, 허균과 동질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전달 과정은 메타 담론에 의해 지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당화를 꾀하는 이야기적 지식의 자기 정당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허균이 객관적 사실의 기록을 존중하던 동양적 역사기록의식의 산물인 전 양식을 빌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인 신선을 입전한 사실은 입전대상과 전이라는 양식 사이의 대립과 길항을 본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는 비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현실로 환치하려는 서사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작품들이 시도한 서사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궁선생전>은 이와 함께 도선 사상을 전달의 화용론적 구조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이야기가 이야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서사전략도 아울러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당대의 주류 담론의 서사 양식인 전의 외연을 띠고 있지만 메타 담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를 꾀해야만 하는 비주류 담론으로서의 도선 사상의 주제화는 전달의 화용론적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IV. 결론

이상으로 허균이 도선 사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도선 사상을

---

(崔聖胤)이라는 선비로부터 이름도 모르는 설생의 이야기를 듣고 입전하였다.

배경으로 <남궁선생전>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남궁선생전>의 서사구조가 전달의 화용론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야기적 지식이 스스로 신뢰성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유교적 담론이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에 어느 특정 사상에 얽매이거나 어떤 이단적 사상을 배척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넘나들기를 추구했던 허균의 의식은 인간이 뛰어넘기 힘든 영역을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신선에 대한 열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쉽게 매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초월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열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허균이 ‘전’이라는 유교적 글쓰기 양식을 빌어 <남궁선생전>을 창작했지만 스스로 이 작품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이루었다고 자부했던 만큼<sup>23)</sup> 당대의 비주류 담론인 도선 사상을 다루면서 스스로 권위를 지니고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효한 서사 전략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남궁선생전>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許筠, 『惺所覆瓿藁』  
 柳夢寅, 『於于野談』  
 李晬光, 『芝峯類說』  
 李命源, 『東野彙輯』  
 洪萬宗, 『海東異蹟』

23) 1610년 10월에 허균은 자신의 글이 나아졌다는 것을 스승 손곡에게 보이기 위해서 몇 편의 작품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남궁선생전>이 있었다.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241면.

- 김은경, 「허균 ‘傳’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7면.
- 김현룡, 「蛟山の <南宮先生傳> 研究」, 『한국학논집』5, 1972, 113-125면.
- 문범두, 「<남궁선생전>의 기술태도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7, 1995, 121-145면.
- 박영호,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1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125-159면.
- 박희명, 「異人說話와 神仙傳(I) - 說話 · 野談 · 小說과 傳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53, 1988, 25-53면.
- \_\_\_\_\_, 「異人說話와 神仙傳(II) - 說話 · 野談 · 小說과 傳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55, 1989, 70-97면.
- 李愼成, 「『감호집』소재 <신선전>에 대하여」, 『고소설연구』6, 1988, 7-39면.
- 이종찬, 「허균의 인간적 갈등과 南宮先生傳」, 『한국한문학연구』1, 한국한문학회, 1976, 43-64면.
- 전상경, 「<남궁선생전>의 형성과 작품구조」, 『문학과 언어』14, 문학과언어 연구회, 1993, 215-233면.
- 전진아, 「죽음을 극복하는 신선 이야기, <남궁선생전>」, 정하영 외,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보고사, 2010, 85-107면.
-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1-302면.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38-245면.
- 차충환, 「<南宮先生傳>의 서사적 성격」, 『고황논집』17, 1996, 33-49면.
- 차충환, 「<남궁선생전>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인문학연구』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197-219면.
- 최삼룡,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16, 한국언어학회, 1978, 159-182면.
- 최창록, 「神仙傳과 神仙小說 장르의 設定」, 『인문예술논총』3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67-85면.
-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1-423면.
- 사이먼 말피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더니즘을 구하라』, 윤동구 역, 엘피, 2008, 1-145면.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이현복 역, 서광사, 1992, 1-239면.

## ABSTRACT

SELF JUSTIFICATION OF MINORITY DISCOURS ON THE 17TH  
CENTURY - CONCENTRATING ON HEO-KYOON'S  
*NAMGUNGSUNSEONGJEON* (南宮先生傳)

Jeon, Jin-ah

Heo-Kyoon(許筠; 1569~1618) was a writer who lived in middle age of the Joseon Dynasty. Al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accumulating results of Heo-Kyoon's *〈NAMGUNGSUNSEONGJEON〉*, opposing opinions over whether his position on Taoist aspect was positive or negative haven't been resolved. There is no doubt that *〈NAMGUNGSUNSEONGJEON〉* covers the theme of Taoist aspect since it contains the course of training to achieve the immortality that is described elaborately and many scenes where an assembly of Taoist gods. However, Heo-Kyoon's stance on Taoist aspect has been in question.

This is a problem which should be fixed through detailed and exhaustive analysis of his work. That's because the problem ultimately starts with the author's sense relevant to the subject.

The narrative structure of *〈NAMGUNGSUNSEONGJEON〉* consists of narrative reiteration like ranging from Mr. Kwon(the master of immortality) to Namgung-Doo to Heo-Kyoon. In addition, the structure has pragmatics that gains its trust itself instead of depending on logic and evidence. Heo-Kyoon was able to justify his discourse and have his own authority by choosing the strategy for narration even though *〈NAMGUNGSUNSEONGJEON〉* dealt with Taoist aspect that was minority discourse of the time.

**Key Words** Heo-Kyoon, *NAMGUNGSUNSEONGJEON*, pragmatics of narrative, legitimize, minority discours on 17th century

논문투고일 : 2012. 11. 06

심사완료일 : 2012. 11. 21

게재확정일 : 2012. 12. 02